

94. 6. 8

성별의식 강할수록 출산율 낮다

육아지원체제 미비로 일·양육 병행 어려워

도쿄/김효순 특파원

주변의 의식과 지원 등 사회환경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일하는 여성의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일본 <산케이신문>이 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가사·육아는 여성의 일이라는 전통적 성별 역할분담 의식이 강한 나라일수록 일하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런 연구결과는 일본 종합연구개발기구가 생활과학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탈리아(1.26명), 독일(1.48명), 일본(1.50명)과 선진국에서 출산율이 가장 높은 스웨덴(2.11명)을 비교 조사해 나온 것이다.

연구보고는 가부장제 및 카톨릭 종교관에 따른 남녀 성별분담 의식이 강한 이탈리아의 경우 육아

지원 체제가 정비되지 않아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워 출산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분석한다.

세살까지는 엄마의 손으로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이른바 '3세 어린이 신화'가 뿌리깊은 독일에서는 여성들의 시간제 취업이 특히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보고서는 성별 역할 분담의식이 고정화되어 있고 보육제도가 미비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승진과 승급에서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일을 선호(기혼여성의 47%)한다고 설명한다. 86년부터 육아수당법 등 가족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출산율이 약간 느는 추세에 있다.

반면 일본은 여성의 직장 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미혼, 만혼이 많아져 출산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사직했다가 재취업하는 것은 시간제에

한정되고 출산·육아기간이 일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취업 여성들은 출산을 꺼리는 경향이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가부장제 의식이 강하게 남아 있는 일본 여성의 경우 남편들의 노동시간마저 길어 독일이나 이탈리아처럼 남편의 가사협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훨씬 적다.

반면 선진국 가운데 여성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스웨덴의 경우는 80년대 이후 출산율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녀 평등정책이 뿌리를 내려 남녀가 가정에서 일을 함께한다는 의식이 크게 확산됐기 때문이라고 이 보고서는 설명한다. 제도면에서도 이러한 의식이 반영돼 출산과 육아 휴직중의 남녀 소득보장, 간호 휴업, 보육소 등이 잘 정비되어 여성이 일이나, 가정이나를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